



광주에서 사흘간 머문 송파 60번 확진자로 인해 가족감염을 넘어 n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9일 밤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유흥밀집 지역의 이용객들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공장 증설되나

코로나19로 해외 공장 섰다운 반복
광주공장 수요 몰려 수출 20% 증가
지역경제 희생에도 도움 될 전망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가전제품 생산과 수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날 광주지역 수출이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것과 달리, 가전제품은 오히려 20% 이상 증가하는 등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주력제품은 '비스포크'와 '세프컬렉트' 등 프리미엄 제품 군으로, 지난 한 해 냉장고 제품만 100만 여대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공장의 섰다운이 반복되고, 위축됐던 소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량은 20% 상당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사업장의 한 해 냉장고 생산량이 100만 여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대략 20만대 가량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코로나 특수'는 광주지역 수출동향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날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광주지역 6월 수출은 기계류(-32.1%)와 타이어(-9.6%), 수송장비(-8.6%)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가전제품 수출은 무려 2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냉장고 수출이 많은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35.2%로 전년

보다 3.4% 늘었다. 이처럼 프리미엄 냉장고를 필두로 광주사업장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면서 삼성전자 측도 생산인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린 상태다. 주간 근무 이외 야간 근무 조를 추가 편성하고, 생산량 증가에 맞춰 파견인력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사업장의 정규직 인원은 3000여명이다.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늘어난 생산량에 맞춰 20% 상당의 인력을 확충할 경우 파견인력과 협력업체 등을 더해 최소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장기화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광주사업장의 생산·수출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삼성전자가 국내 생활가전 전초기지인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지역경제계에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광주사업장의 생산·수출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다"며 "아직까지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광주사업장의 생산·수출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다"며 "아직까지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사업장의 정규직 인원은 3000여명이다.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늘어난 생산량에 맞춰 20% 상당의 인력을 확충할 경우 파견인력과 협력업체 등을 더해 최소 1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장기화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광주사업장의 생산·수출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삼성전자가 국내 생활가전 전초기지인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지역경제계에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고 광주사업장의 생산·수출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다"며 "아직까지 광주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 50대 여성 거짓말 광주·전남이 발각 뒤집혔다

서울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뒤
3일간 광주 친척집 방문 사실 숨겨
광주 11·전남 1명 슈퍼감염 일으켜

대전발 코로나19 2차 유행 후 광주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뚝뚝 뚝뚝 만들어낸 확진자 '0' 이란 성과가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번엔 서울 송파발 방문판매업체 관련 50대 여성이 광주 친척집을 방문하고 가족모임에 참가했다가 10명이 넘는 슈퍼감염을 일으켰다. 이 여성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3일 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대규모 감염 사태를 키웠다.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시민과 함께 강도 높은 방역 시스템을 유지해온 광주시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광주만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코로나19를 절대 막을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도 광주만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정부에 전국적인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건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전남에서 '서울 송파 60번(50대 여성)' 관련 확진자는 광주 11명(광주 177-187번), 전남 1명(전남 35번·보성 1번) 등 12명이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10명, 이날 광주·전남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엔 지난날 27일 광주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21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송파 60번 직·간접 접촉자 검사 대상자만 계수초등학교 402명(학생 353명, 교사 44명, 기타 5명), 희망직업학교 관련 61명, 더불어민주당 관련 8명 등 596건에 이른다. 자가격리자는 128명이다. 추가 동선 파악에 따라 검사 대상자와 확진자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송파 60번은 자신의 딸인 '송파 62번'과 함께 90

대인 시어머니 간병문제 등과 관련한 가족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만 광주에 머물며 친인척들과 3차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감염된 광주 177-185번까지는 송파 60번과 친인척 관계이며, 90대인 시어머니부터 초등학교 친인척까지 가족 11명이 감염됐다. 나머지 186번은 송파 60번의 친척인 183번과 희망직업전문학교에서, 187번은 177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접촉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송파 60번은 서울 관악구 다단계 방문판매법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인 부친 179번과 지난 8일께 밀접 접촉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자였던 송파 60번은 이 같은 감염 사실을 모르고 광주를 방문했으며, 지난 12일 서울로 돌아간 뒤 15일 오전 7시 30분께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송파 60번은 이후 3일 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겼다. 그 사이 송파 60번으로부터 감염된 광주의 친인척들은 직장과 광주 인근 보성, 장성, 순천 등을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자칫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이날 거짓말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광주경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한사람의 분별 없는 광주 친척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거짓말로 수많은 광주시민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2차 감염이 시작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추가 검사자와 확진자, 격리자가 나올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에선 이날 오후 4시께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가 숨졌다. 이 남성은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로 지난 1일 무증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광주에선 두번째, 전국에선 296번째 사망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시장·신안군수 시·군통합 공식 합의

빠르면 2024년 통합시장 선출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에 공식 합의했다.

김 시장과 박 군수는 지난 16일 목포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일오펀크스'에 출연,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에 공식 합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신안군과 목포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며 시·군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신안·목포 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군 통합에 먼저 시동을 건 박 군수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한 점이 많

다"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 시장도 "두 지역이 합치면 10년간 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많다"고 화답했다.

통합 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 준비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2024년 총선과 함께 통합 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군수는 여러가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가 적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군수와 김 시장이 통합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9월께 실무위원회를 구성, 통합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양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군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정부에 통합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1994년 이후 7번째인 신안과 목포 통합 논의가 양 지역 단체장이 대응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목포와 신안 통합이 전남 서남권의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시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포함)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공익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

SMART 국민제보 앱



iOS 용

Android 용



전남지방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

